

오순절 후 열다섯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5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9월 1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42 장 “구주 예수 의지함아” (통일 34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7 번 (시편 91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갈라디아서(Galatian) 2:16-21</b>	박은정 집사
찬 양 Anthem	“크신 은혜”	찬양대
설 교 Sermon	<b>“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y Faith in Jesus Christ)</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546 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통일 39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점점 더 무기력해졌으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안일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힘 없이 무너졌던 우리를 붙잡히 여겨 주시고,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2:15,1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개혁개정 **갈2:16**)

“Know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observing the law, but by faith in Jesus Christ. So we, too, have put our faith in Christ Jesus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observing the law, because by observing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NIV **Galatians 2:1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10 (주일)	9/11 (월)	9/12 (화)	9/13 (수)	9/14 (목)	9/15 (금)	9/16 (토)
본문	삼하4,5	삼하6	삼하7	삼하8,9	삼하10	삼하11	삼하12
	고전15	고전16	고후1	고후2	고후3	고후4	고후5
	겔13 시52-54	겔14 시55	겔15 시56,57	겔16 시58,59	겔17 시60,61	겔18 시62,63	겔19 시64,6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9/13수 오후7:30)	“영성의 갈”(3)-“비움과 채움의 영성” (빌25-8)
토요 새벽기도회 (9/16토 오전6:30)	“나의 영혼이 피곤하오나” (시119:81-88)

지난 주일(9/3) 말씀

“헛되지 않은 은혜” (고전 15:9-11)

기독교를 가리켜, (일명) "은혜의 종교"라고 표현하지만, 동시에 "은혜"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마이클 아고넬리는 "은혜 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고 했고,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은 동시에, 은혜로 마비되고 말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은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뜻을,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만 여기다 보니, 잘못 오해하고 왜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은혜를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어 받지 말라"(고후 6:1)고 분명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고전 15:10)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야 하는지? 를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하게 있는데... 1)먼저는, 그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고, 2)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어 받지 않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반응(죄로부터의 단절과 청산)과 더불어, 빛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거룩한 채무의식을 항상 견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